

9-14-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마태복음 6:9-10

말씀제목: 하늘과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의 왕국(Kingdom)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왕국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죄를 가져온 후 온 세상은 사탄의 지배 하에 들어가서 사탄이 원하는 자들에게 왕국들을 나누어주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전히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폭력으로 탈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자신의 왕국을 회복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늘과 땅에 자신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육천 년 동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조시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 일 동안 만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지난 육천 년을 육일 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마침내 지상에 자신의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일곱째 천년이 오게 될 때에 마침내 마귀를 무저갱 속으로 던져넣으시고 자신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시고 쉬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과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조만간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들어올리신후 자신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7 년 동안 대환란을 계획하시고 휴거되지 못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7 년 대환란은 자신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여 회개케 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Jacob's trouble)라고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 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 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든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렘 30:4-9)

적그리스도는 옛날 히틀러처럼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피시키시어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계 12:6,13-17)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대 환란에 들어가서 온갖 고난을 받으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권세와 능력이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찍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계 7:9-17)

대환란에 들어간 이방인들이 환란 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도피하면서온갖 고난을 받다가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회개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세울 것이며 전날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또 황폐된 성읍들과 많은
세대들의 허물어진 곳들을 보수할 것이라.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일 것이요, 외국인의 아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이는
너희의 수치로 인해 배나 가질 것이며 치욕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즐거워할 것임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배나 차지할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사 61:4-7)

한편 대환란 전에 휴거된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지상에서 7 년 동안 대환란이
있는 동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계 19:7-8)

혼인잔치를 마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과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계 19:14-15,20)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그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새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더라.”(계 5:9-10)

할렐루야! 아멘!